

유압초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⑤ ... 창의력을 키우는 미술교실

음악듣고 그림그리기 실습 창의력 향상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고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을 통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어려웠던 미술의 이해를 재미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친숙한 생활미술로 만들고 표현에 막힘 없는 작품을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이나 대상 연습을 함으로서 자신만의 작품을 창출한다"

유압초등학교(교장 송종길)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창의력을 키우는 미술교실 운영 목적 및 방침이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선영 외부강사를 특별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는 미술교실에서는 기초대상과 생활화 위주로 그림을 교육한다.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제공과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 선택 등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색깔의 우연의 효과와 의도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창의력 향상을 위해 음악을 듣고 느끼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실습과 미술감상법을 통해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

김선영 강사는 주제에 맞는 화면의 구도와 표현 기법을 교육하고 기초대상을 통해 사물형태의 특징과 재질감, 명암 등 표현 방법을 이해시키고 감각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감 있고, 친숙한 미술교육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위해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

미술 소질 조기 발견 상급학교에 연결 교육



창의력 향상을 위해 음악을 듣고 느끼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실습과 미술감상법을 통해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

는 표현기법을 알게 한다고 밝혔다.

현대미술의 이해를 높이고 창의성 있는 작품을 창작하며 이론과 실기를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박광범 유압초등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미술교실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소질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감이나 기구 등 교

재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과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미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소질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미술교육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여라 끼와 재능의 Festival"

음식바자회 등 수익금, 학생중식비 지원



지난 26일 '모여라 끼와 재능의 Festival'의 제3회 갈월제가 교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3회 갈월제 개최

26일 갈월중학교(교장 박종구) "모여라 끼와 재능의 Festival"의 제3회 갈월제가 교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 번째 맞는 갈월제는 오전 9시 개최식에 이어 개막공연으로 공감 21의 전통타악의 신명과 남미안데스 음악의 정열의 하모니, 퓨전콘서트가 이어졌다. 또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OX퀴즈를 비롯한 테마체험, 알뜰바자회 등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방학중 과

제물과 학부모와 교사 등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가졌다.

갈월중 박종구 교장은 "전시회 작품은 방학과제물을 주체별로 모아 전시회를 갖게됐다"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개성과 재능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대운 교감은 "이번 갈월제에서는 음식바자회와 무공해 비누 등을 판매한 기금을 모아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먹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지급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학생과 함께하는 것이 이번 갈월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연천·전곡고 청소년 어울마당

제1회 연천·전곡고 청소년 문화 체육 한마당 축제가 지난 21일 김규배 연천군수, 조돈환 연천교육장, 김창석 연천군의회의장, 가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연천지역 양대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개최식에 이어 축구, 이어달리기, 농구, 발야구 등 체육행사에 이어 각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가요·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 문화 한마당 폐회 선언 후에는 불꽃쇼가 공설운동장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제1회 연천·전곡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양대 고교의 서로의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 앞으로 행사를 더욱 더 발전시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남 기자 94spice@hanmail.net

윤종성의 미국어짜리하기

7. 이진 천연색 돌가루로 만든 겁니까?

Is this made of natural color stone powders? 이스티스메이들 네이쥬럴스톤과 우더스?

*아닙니다. 몇가지 화학약품으로 만들었지요. No, It is made of some chemicals. 노우, 잇스메이후럼 썬케미칼스.

8. 방 들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reservation for two rooms. 아이드라이투 메익 리절베이션 투룸스.

*미안합니다. 방이 하나 뿐 이라서요. Sorry, only one room is available. 쏘리, 울라이원룸스어벨러블.



문의: 윤종성 (017-723-4977)calyoon@nate.com

교사 탐구 32 포천삼정초등학교 원경부장 이경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도 좋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나선다"는 포천삼정초등학교 원경부장 이경우(46·사진)교사를 만났다.



서울 장안초등학교, 덕수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제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85년 경남 밀양에서 첫 발령을 받아 교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이 교사가 포천에 부임한 것은 지난 99년9월이다. 이후로 포천을 떠나지 않고 포천교육계에 헌신하고 있는 이 교사의 첫인상을 매우 맑고 밝음이다.

이 교사는 포천이라는 지역에 대해 농촌이며 산촌이고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다. 역대 대통령은 이처럼 순수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이곳 아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 교사는 방학을 이용해 세계배낭여행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38개국을 여행하면서 비디오로 담은 세계의 풍경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실질적인 독서지도로 학생 수준 향상 성과 기대

다. 학생들에게 우리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은 아주 넓은 사실을 교육한다. 이처럼 넓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여행중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영상물과 사진 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큰 꿈을 가질 것을 교육하고 있다.

이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독서교육을 하고 있다. 책 속에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그리고 독후하나 독후감을 쓰게 한다. 이렇게 독후하나 독후감을 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가슴에 대고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 사진을 스크랩하여 학년을 마칠 때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의 가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여 1년에 70여권을 읽은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 교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사는 크리스찬으로서 남다른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성경 로마서 2장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구절을 마음속에 담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 늘 배우고 익히며 아이들에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연구하고 정리하여 다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우지 아니하면 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늘 독서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교사 "교육이론을 실천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론을 적용하는 학문적인 영역은 교육이론 교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매일의 일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적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사는 일기장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일기를 쓰게 하고 일기를 검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기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교사는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조건 적는다. 여행기록문도 마찬가지다. 나라별 차이점과 필 먹었는지, 알바를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것을 공책으로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교육한다. 우리나라 전통과학이 기록되지 않아 그 심오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 교사는 영어공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학이 되면 당장 영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여행에서 영어는 필수다. 지난 10년 동안 38개 국가를 다녀온 이 교사에게는 이것보다 중요한 교육자료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물론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큰 꿈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앞으로 방학을 이용한 세계여행은 모든 국가를 여행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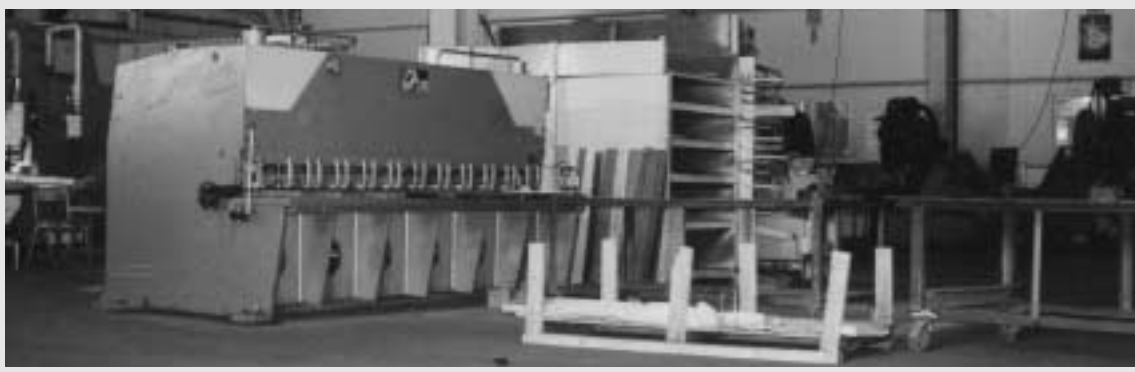
학교현장에 대해 이 교사는 유능한 교사들은 관리직으로 나가고 무능한 교사들만 남아 학생들을 책임지는 광경이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캐나다에서 온 원어민 강사가 2학년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체신머리 없다'고 물어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유능한 교사들이 계속 남아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관리직으로 나가 교육정책 수립 등의 역할도 해야 하겠지만 오직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 교사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갖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더라도 교육하고 싶은 심정에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학생들을 대하는 이 교사의 얼굴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밝은 현장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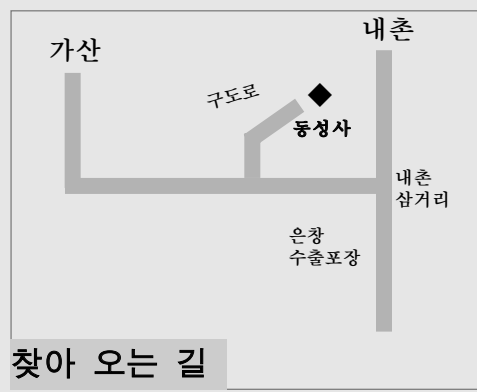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인테리어 소품
◇ 가구 장식품 부품
◇ 불박이장 부품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윤이용